

# 석독구결 ‘尸’의 해독에 대하여

황 선 업\*

차 례

1. 서 론	2.3. 석독구결 ‘尸’의 음가
2. 본 론	2.4. 미해결의 문제
2.1. 15세기 국어에서 속격 ‘尸’의 음가	2.5. 향가에 보이는 ‘尸’
2.2. 관형사형어미 ‘-ㅁ’과 속격조사 ‘-尸’	3. 결 론

## 1. 서 론

석독구결에 쓰이는 ‘尸’자에 대하여는 그 동안 여러 연구자들의 논의가 있어 왔다. 초기에는 주로 목적격조사의 표기에 쓰이는 ‘乙’과 대비해서 관형사형어미를 표기하는 데 이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었다. ‘尸’이 관형사형어미의 표기에 쓰이는 것은 이미 향가 연구에서부터 알려져 있던 사실이었기에 그다지 논란거리가 되지 못했음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점차 관형사형어미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예들에 주목하게 되면서 다른 관형사형어미 ‘ㄱ’과 함께 이들이 기원적으로는 동명사형어미였음이 밝혀지고<sup>1)</sup> 때에 따라서는 연

\* 덕성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 관형사형어미 ‘-ㄴ, -ㄹ’이 동명사형어미였을 것임은 이미 김완진(1957)에서 논의된 바 있고 향가에서도 어느 정도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지만 고려시대의 석독구결 자료가 나타남으로 인해 비로소 확증할 수 있게 되었다. 석독구결에서 ‘ㄱ,’

결어미로도 기능하고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다.<sup>2)</sup> 이후 ‘尸’이 『화엄경』에서 속격의 위치에 쓰인 예들이 나타남으로 인해 그 음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백두현(1993)에서 ‘尸’를 속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후 이장희(1995)에서 ‘尸’의 음가에 대하여 ‘ㄴ’ 외에 ‘ㅅ’으로 읽어야 할 예들이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에 이어 김유범(1996)에서는 ‘尸’이 ‘ㄴ’과 ‘ㅅ’의 두 가지 음가를 지니는 것은 ‘尸’의 한자음이 ‘ㄴ’에서 ‘ㅅ’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유창균(1994)의 견해와 유사하다. 그러나 필자는 같은 시대 같은 문헌에 쓰이는 ‘尸’에 대해 두 가지의 음가를 배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글의 목적은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尸’이 하나의 음가를 지니는 것이었음을 밝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尸’의 음가를 15세기의 ‘ㄷ’으로 표기되던 관형사형어미의 음가에 상당하는 것으로 비정한다. ‘尸’의 음가를 ‘ㄷ’으로 파악하는 것은 물론 여러 연구자들이 동의해 오던 바이기는 하지만 이 글에서는 ‘菩薩尸’류의 단어 및 향가에서의 발음첨기에까지도 이러한 음가를 관철시켜 해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관형사형어미나 동명사형어미에 쓰인 ‘尸’뿐 아니라 다른 용법으로 쓰인 ‘尸’에 대해서도 역시 그 음가는 ‘ㄷ’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sup>3)</sup>

## 2. 본 론

### 2.1. 15세기 국어에서 속격 ‘ㅅ’의 음가

‘尸’의 음가를 비정하기에 앞서 우리는 석독구결이 가지는 문자론적 특성을

---

‘尸’이 동명사로 기능함에 대해서는 이승재(1995)와 남풍현(1996a, 1996b, 1996c) 등을 참조할 수 있다.

- 2) ‘尸’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는 남풍현(1996a)와 남풍현(1996b)를, ‘尸’의 기능에 대해서는 남풍현(1996c)를 참조할 수 있다.
- 3) 물론 여기서의 ‘ㄷ’은 15세기에 쓰이던 표기를 고려한 것이어서 음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으나 이해와 표현의 편의상 ‘ㄷ’으로 나타내기로 한다.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황선엽(2000)에서 다룬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간략히 요점만을 간추려 논의하기로 한다.

석독구결은 'ㄴ/은/은/는/는'과 같은 이형태는 'ㄱ'으로, 'ㄹ/을/을/를/를'과 같은 이형태는 'ㄷ'로 표기한다는 점에서는 형태음소적 표기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사 '-은'과 관형사형어미 '-은'을 모두 'ㄱ'으로, 연결어미 '-아'와 선어말어미 '-아-'를 모두 'ㄱ'로, 주격조사 '-이'와 계사 '-이-', 대명사 '이'를 모두 'ㅁ'로 표기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석독구결은 기본적으로 음절문자라 할 것이다.<sup>4)</sup> 즉 석독구결은 어느 하나의 음을 나타내는 문자를 정해 놓고 그러한 음상을 지닌 형태소나 음절(경우에 따라서는 음절 말음)을 모두 같이 표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sup>5)</sup> 간혹 한 문헌에 같은 음을 나타내는 글자가 두 개 이상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이런 소수의 예로 석독구결이 기본적으로 음절 문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석독구결이 기본적으로 음절 문자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목적격조사 '乙'과 관형사형어미 '尸'을 다른 문자로 구분하여 적은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이들을 구별하여 표기한 것은 형태나 문법에 대한 인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다른 까닭에 달리 표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乙'과 '尸'이 소리가 달랐다는 주장이 보다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尸'이 뒤에 'ㄱ, ㄷ, ㅂ, ㅅ, ㅈ' 등이 오는 환경이 아닌 곳에서도 '乙'과 발음이 구별되었으리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을 증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 할 것인데 여기서 봉착하는 문제가 차자표기 자료를 통해 이러한 가정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15세기 언해 문헌과 석독구결 간의 간접적인 비교를 통하여 어느 환경에서나 '尸'이 '乙'과 다른 소리였을 것임을 증명해 보고자 한다. 이

4) 기본적으로 음절문자라 한 것은 'ㄷ(ㄷ), ㄱ(ㄱ), 乙(乙), ㅁ(ㅁ)'과 같이 음절 발음을 표기하는 문자들이 있음을 고려해서이다. 일본의 가나가 음절이 아닌 종성을 나타내는 'ㅅ'을 가지고 있음에도 음절문자로 분류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ㄷ(ㄷ), ㄱ(ㄱ), 乙(乙), ㅁ(ㅁ)'과 같이 음절 발음을 표기하는 문자의 존재가 석독구결은 음절문자라 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5) 문헌이나 시대에 따라 하나의 음을 표기하는 글자가 바뀌기도 하지만 역시 음절 문자적인 특징은 유지된다.

4 한국문학논총 제 26 집

를 위해서 먼저 15세기에 속격조사로 쓰인 ‘ㅅ’의 성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齶齶戶’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15세기의 속격조사 ‘ㅅ’의 음가에 대하여는 박창원(1990), 황국정(2000) 등을 참조하여 간단히 살펴본다.

- (1) ㄱ. 바룻물 <두초 6:50>, 바룻즈 <두초 8:38>  
 ㄴ. 이룻날 <월석 1:6>, 이룻날 <석보 6:27>, 이룻날 <삼강 열녀:20>

(1ㄱ)은 속격조사 ‘ㅅ’ 앞에서 ‘ㄹ’이 탈락한 것으로 이는 15세기 당시에 속격의 ‘ㅅ’이 음절말에서 /s/로 실현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1ㄴ)은 ‘ㅅ’ 앞에서 ‘ㄹ’의 탈락이 수의적으로 일어나거나 ‘ㅅ’이 ‘ㅅ’으로 되기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표기가 실제의 음을 나타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1ㄴ) 표기가 현실음을 반영한 것이라면 ‘ㅅ’으로의 변화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ㅅ’은 /s/의 음가를 지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훈민정음언해』에 보이는 다음의 예들은 우리로 하여금 속격의 ‘ㅅ’이 과연 /s/의 음가를 지니는 것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만든다.

- (2) ㄱ. 君ㄷ 字, 快ㄷ 字, 斗ㄷ 字, 單ㄷ 字, 洪ㄱ 字, 乃終ㄱ 소리  
 ㄴ. 齒頭ㅅ 소리, 正齒ㅅ 소리  
 ㄷ. 가운뎃 소리, 나뎃 소리, 헛 글, 옷 뎃 머리, 아랫 뎃 모습, 나뎃 말쌈  
 ㄹ. 엄쏘리, 혀쏘리, 입시울쏘리, 니쏘리  
 ㅁ. 다뎃나라  
 ㅂ. 業字, 欲字, 戍字  
 ㅅ. 中國 소리, 목 소리

(2ㄱ)은 한자어 뒤에서 그 말음에 따라 속격의 표기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나중에 추가된 것으로 생각되는 ‘齒頭ㅅ’과 ‘正齒ㅅ’에 대한 규정 부분에서는 (2ㄴ)과 같이 속격이 ‘ㅅ’으로 표기되어 있다. (2ㄱ)에서와 같은 규칙을 적용한다면 ‘齒頭ㅅ 소리, 正齒ㅅ 소리’가 되었어야 할 것이나 (2ㄷ)의 고유어 뒤에서와 같이 ‘ㅅ’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다. (2ㄱ)과 같은 예를 통해 우리는 이 시기의 속격조사가 과연 /s/의 음가를 가지는 것이었다

면 왜 이렇게 다양한 표기 방식을 취하는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되고 (2ㄴ)과 같은 예에서는 '尸'으로 표기된 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그 음가가 /s/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된다. 그렇다면 이들 예에 보이는 속격 '尸'의 음가는 무엇이었을까? (2ㄷ)과 같은 예를 통해 현대국어의 사잇소리처럼 /ʔ/ 정도가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나랏 말씀'과 같은 환경에서는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t/로 실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ㄷ)과 같은 '씨'에 대해 함용병서에 쓰여 경음을 나타내는 '尸'이 붙은 것이 아닌 각자병서로서의 '尸'이 쓰인 것으로 보아 (2ㄹ)의 '다만니라'와 마찬가지로 '헛소리'로 발음되어 /s/의 음가를 지니고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한 15세기에 음절말에서 '尸'와 'ㄷ'이 명확히 구분되었음을 고려할 때 '나랏 말씀'의 '尸'이 과연 /t/로 실현되었는지 확신할 수도 없다. 나아가 (2ㄱ)이나 (2ㄴ)과 같이 장애음 뒤에서는 속격의 '尸'이 어떤 식으로도 표기되지 않고 모음이나 공명자음 뒤에서만 표기된다는 점도 /ʔ/보다는 /s/의 가능성을 지지하는 듯하다.

(1)의 예는 속격 '尸'의 음가가 /s/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2)의 예들은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 간접적인 증거를 제공하기도 하고 의문을 제기하게도 한다. 왜 이와 같은 모순이 보이는 것인가? 종래의 연구에서는 속격의 '尸'이 기본적으로 /s/의 음가를 지니는 것이었으나 점차 현대국어와 같이 /ʔ/(음절말에서는 /t/)으로 변해가는 것으로 보고 15세기가 그 과도기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필자도 이와 같은 입장을 수용하고자 한다. 다만 그 변화의 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소급할 가능성이 있을 듯하다. 이에 대하여는 석독구결 자료의 '菩薩'을 검토하면서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15세기 속격의 '尸'의 예들을 더 살펴하기로 한다.

『훈민정음언해』 이후의 문헌에서<sup>6)</sup> 속격의 표기는 '尸'으로 통일되어 간다. 그러나 (3)의 예와 같이 『훈민정음언해』 식의 표기가 여전히 나타나기도 하는 바 이는 (4)에서 보이듯 이전 시기 문헌에 의한 영향일 것이다.

6) 『훈민정음언해』가 『월인석보』 1·2의 권두에 실려 있기는 하지만 원간연대는 『석보상절』의 간행연대인 1447년 경일 것임을 안병희(1990)에서 추정한다. 바 있다.

- (3) 西天<sup>ㄷ</sup> 字 <월석 서:23b>, 幡<sup>ㄷ</sup> 數 <월석 10:120a>, 瓶<sup>ㄱ</sup> 소매 <월석 1:10a>, 城<sup>ㄱ</sup> 西門 <월석 2:67a>
- (4) ㄱ. 先考<sup>ㅁ</sup> 聃(12장), 平生<sup>ㄱ</sup> 聃(12장) <용가>  
 ㄴ. 西天<sup>ㄷ</sup> 祖師 <석보 24:4b>, 梅檀香<sup>ㄱ</sup> 菓으로 <석보, 6:38a>, 王<sup>ㄱ</sup> 姓 <석보 9:19b>

즉 (3)과 같은 표기가 『석보상절』 등에 의해 영향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속격조사 ‘ㅅ’이 /s/로 발음되었다면 이런 표기를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반대로 /s/가 아니었음을 확증할 수도 없는 데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

- (5) ㄱ. 世尊<sup>ㅅ</sup>괴 <월석 7:5a>  
 ㄴ. 世尊<sup>괴</sup> <월석 7:1b>
- (6) ㄱ. 銀堀<sup>ㅅ</sup> 가운데 <월석 7:19b>  
 ㄴ. 金<sup>ㅅ</sup> 비치려라 <월석 7:40b>  
 ㄷ. 靑山<sup>ㅅ</sup> 가운데 <금삼 1:23a>
- (7) ㄱ. 如來<sup>ㅅ</sup> 아수 難陁] <월석 7:13b>  
 ㄴ. 金剛杵<sup>ㅅ</sup> 머리마다 <월석 7:35b>  
 ㄷ. 大雄氏<sup>ㅅ</sup> 般若 불어 나르샤몬 <금삼 1:2a>  
 ㄹ. 祖師<sup>ㅅ</sup> 서르 傳<sup>ㅁ</sup>는 거시려니 <금삼 1:7b>  
 ㅁ. 天下<sup>ㅅ</sup> 어미라 나르느니 <금삼 1:9a>

(5)는 한 문헌에서 존칭의 여격조사 ‘-괴’가<sup>7)</sup> 달리 표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6)은 (5)와 유사한 환경으로 공명자음과 장애음 사이에 쓰인 ‘ㅅ’의 예이고 (7)은 모음 뒤에 쓰인 것 중 뒤의 음을 경음화시킬 수 없는 위치에 쓰인 ‘ㅅ’의 예이다. (5)에서 어느 경우에나 ‘ㅅ’은 /ʃ/이어서 ‘괴[꺠]’에 해당하는 음을 표지한 것이라 할 수도 있고 (5ㄱ)은 /s/, (5ㄴ)은 /ʃ/이라 할 수도 있다. 물론 ‘ㅅ’계 합용병서가 모두 제 음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괴’에서조차도 ‘ㅅ’이 /s/로 발음되었다고 하겠으나 필자는 ‘ㅅ’계 합용병서는 경음을 나타

7) ‘-괴’는 기원적으로는 속격조사 ‘-ㅅ’에 ‘괴’가 통합한 것이다. ‘괴’는 ‘그어괴>그에>괴’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단어로 생각된다. 이러한 음절 부음을 남긴 어중음절 탈락에 대하여는 준비중인 박진호·이승희·황선엽의 공동논문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내는 것으로 본다. (6)과 (7)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s/와 /ʔ/의 해석이 다 가능하다. 다만 (7)의 ‘ㅅ’이 /ʔ/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면 그 음은 /t/로 실현되었을 것이다. 이상의 예에서는 속격의 ‘ㅅ’이 /s/나 /ʔ/(음절말에서는 /t/) 어느 쪽이었다 하더라도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의 예들은 /ʔ/보다는 /s/의 가능성을 지지하는 듯하다.

- (8) ㄱ. 武陵스 내홀 訪問호노라 <두초 3:21b>
- ㄴ. 經스 일후미오 <금삼 1:2a>
- ㄷ. 唐스 말스므로 <금삼 1:6b>
- ㄹ. 阿彌陁佛스 일후물 <월석 7:71a>
- ㅁ. 菩薩스 힝더글 <석보 9:8a>
- ㅂ. 世間스 이론 <두초 3:8a>
- ㅅ. 世尊스 말올 <월석 7:6b>
- ㅇ. 傅巖스 미해셔 <두초 3:11b>
- ㅈ. 諸佛스 괄히 기픈 힝덕 <석보 9:27a>

(8)의 예에서는 ‘ㅅ’의 음가를 /ʔ/으로 보기가 어렵다. 물론 이들이 형태 외식의 발로에 의한 것으로 실제 발음되지 않는 음을 표기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법적인 인식만을 바탕으로 소리나지 않는 음을 적어 넣었다고 보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주장이 되기 쉽다. (8)과 같은 환경에서 ‘ㅅ’은 /s/ 정도로 소리가 났던 것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즉 15세기의 속격 ‘ㅅ’은 /ʔ/으로 변해가는 과도기였기는<sup>8)</sup> 하나 아직 /s/로도 발음되고 있었다 하겠다.

## 2.2. 관형사형어미 ‘-러’와 속격조사 ‘-스’

다음으로 15세기 국어에서 관형사형어미 ‘-러’에 대하여 살펴보자.

- (9) ㄱ. 그 사록미 命終홀 찌귀 <월석 7:71b>
- ㄴ. 이 사롬 命終홀 저귀 <월석 7:71b>

8) 뒤에서 살펴겠지만 이러한 변화는 15세기에 시작된 것은 아니며 훨씬 이른 시기부터 보인다. 따라서 상당히 긴 기간에 대해 과도기란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치 않은 듯도 생각되나 /s/와 /ʔ/이 공존하는 시기를 지칭할 적절한 용어가 없어 과도기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9)는 관형사형어미 '-ㅁ'이 한 문헌의 같은 페이지에서 달라 적힌 예를 보여 준다. 이 외에 '-홀 저귀'와 같은 표기도 사용될 수 있었으나 이 역시 현실발음은 (9ㄱ)과 같았을 것이다. (9ㄴ)의 'ㅁ'과 같은 표기에서 'ㅎ'은 뒤에 오는 'ㄱ, ㄷ, ㅂ, ㅅ, ㅈ'을 경음화시키는 요소를 나타내는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필자는 속격의 'ㅁ'이 /ʔ/으로 실현될 경우 이것이 관형사형어미에 보이는 'ㅎ'과 음성적으로 같은 것임에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둘은 표기상 혼동될 여지가 있었다.

- (10) ㄱ. 하늘 뿔 <용가 제4장>
- ㄴ. 하늘 뿔 <용가 제50장>

『용비어천가』에 보이는 (10ㄱ)의 예가 바로 그러한 것으로 속격의 'ㅁ'을 'ㅎ'으로 표기한 예이다. 물론 (10ㄴ)과 같이 'ㅁ'으로 되어 있는 예도 보인다.

다음은 기원적으로 동명사형어미의 '-ㅁ'에서 유래한 것이 '-ㅁ'으로 표기되어 있는 예이다. 물론 이 경우 실제로 'ㅁ'이 발음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이것이 단순히 표기만의 문제인지 음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필자로서는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형편이다.

- (11) ㄱ. 일로 流布호디 다음 업시 호리라 <능언 1:4b>
- ㄴ. 이 道를 볼기살뎨 日月燈사 서르 니셔 다음 업스삼 곁호지머 <법언 6:86b>
- ㄷ. 普門 圓行이 應호야 現호샤미 다음 업스샤물 表호지니라 <법언 7:43b>
- ㄹ. 몸 바긔 다음 업스 일란 스랑터 말오 사라실 제 그지 잇는 숲 薑을 쏘 다 머굴디니라 <두초 10:8a>
- ㅁ. ㅈ 업스 디는 나뭇 니핀 蕭蕭히 ㄴ리고 다음 업스 긴 ㄱ르문 니섬 니셔 오눗다 <두초 10:35b>
- ㅂ. 사흙과 다뭇 ㄱ새 와슈매 이 나래 ㅂ디 다음 업도다 <두초 11:31a>
- ㅅ. 變化호미 다음 업수물 알리로소니 <두초 17:6b>
- ㅇ. 流落호야 돈노매 ㅂ디 다음 업소라 <두초 21:25b>

9) '-ㅁ'은 기원적으로는 동명사형어미이던 것이 후기 중세국어에서는 주로 관형사형어미로 쓰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관형사형어미와 동명사형어미라는 말을 섞어 쓰되 전자는 후기 중세국어의 '-ㅁ'을, 후자는 전기 중세국어의 '-ㅁ'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 스. 즘븐 보플 陵寢에 薦進하야 기리 다옌 업시 드리웁디니라 <두중 4:23b>
- 스. 變化호미 다옌 업슬시라 <금삼 1:20b>
- 카. 다옌 업스 이 마술 놀드려 니르리오 <금삼 2:45a>
- 타. 法布施는 다옌 업스니 <금삼 2:51a>
- 파. 功德이 ㄹ 업서 기류미 다옌 업스니라 <금삼 3:4b>
- 하. 慧命이 다옌 업게 흘디니 <금삼 5:49a>
- 타. 源源은 물 흘로미 다옌 업스 양지니 물 흘름 곧호민 源源하야 다옌 업서 <남언 상:34a>
- 타. 自性法門이 다옌 업스니 誓願하야 비호며 <육조 중:27b>
- 카. 니퍼 돕스오미 다옌 업서 後世를 기리 주노라 <개간법언 서:5b>
- 카. 내 천향애 거시 다옌 업스니 사오나온 저근 슬위로 諸子돌홀 주미 울터 묻도다 <개간 법언 2:26a>

- (12) 가. 諫爭 하는 버스리라 通達터 아녓 아니로소니 詩義로 일 일후물 아 좃다 <두초 19:16b>
- 나. 오닐 나래 史君과 官僚와 僧尼道俗과 혼터 모드니 여러 劫사 因이 아녓 아니며 <육조 상:46>
- 다. 緣을 조촉며 感애 브트샤미 두쿠 아니홀 아니하시나 상네 이 菩提 塵애 거시도다 <금삼 5:10b>

- (13) 놀애롤 노외야 슬픏 업시 브르느니 <두초 25:53a>

(11)~(13)은 석독구결 자료에 보이는 동명사형어미 ‘-ㅍ’이 동사문 부정에 쓰이던 용법이<sup>10)</sup> 15세기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는 예들인데 모두 ‘리’으로 표기되어 있다. (11)의 ‘다옌 업-’은 워낙 많은 예가 여러 문헌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합성어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12)의 ‘아녓 아니-’나 ‘아니홀 아니-’, (13)의 ‘슬픏 업-’까지 합성어로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합성어로 처리하지 않았다.

이상에서 우리는 관형사형어미 ‘-ㅍ’의 ‘ㅎ’과 속격조사 ‘시’이 음성적인 유사성으로 인해 서로의 표기에 영향을 미치는 예들을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尸’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10) 이러한 동명사형어미 ‘尸’의 용법에 대해서는 남풍현(1996a), 남풍현(1996b)를 참조할 수 있다.



(14)의 예는 '尸'이 속격에 쓰인 예이다. 그러나 여기서 '尸'는 단순히 속격의 '-시'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尸'이 '薩' 뒤에 쓰여 속격을 나타내고 있음에 주목하여 보자. 즉 '살' 뒤에 속격의 '-시'가 통합하여 '살' 정도가 되었을 것인바 '尸'은 바로 이 'ㄷ'에 대응하는 것이다. 물론 이때의 '시'이 /s/의 음가를 지니는 것인지 15세기의 속격과 같이 경음을 실현시키는 요소인지 또는 그 중간에 해당하는 어떤 특정 음운이었던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는다. 15세기의 예인 (10)~(13)에서 보았듯 'ㄹ' 뒤의 속격 'ㅅ'과 관형사형어미는 서로 표기가 넘나들 만큼 유사한 음성 실현을 보이고 있었는데 필자는 전기 중세국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자 한다. 즉 'ㄹ'말음 체언 뒤에 속격조사 '-시'가 올 때 그 음성실현은 동명사형어미 '-ㄷ'과 유사하였기 때문에 '尸'으로 같이 표기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尸'의 음가는 'ㄷ/ㄷ'이며 기능은 첫째 동명사형(관형사형)어미, 둘째 'ㄹ'말음 명사의 속격(즉 구결로는 '乙+七')이라 할 수 있다. (15)의 예는 '尸'이 이른바 주어적 속격으로 쓰인 예이다.<sup>11)</sup> (16가)~(16다)은 여격, (16ㄷ)은 처격으로 쓰인 예인데 15세기의 '-스기/피'에 대응한다. '-스기'가 기원적으로 속격구성에서 왔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15세기에는 '-피'가 처격으로 쓰이는 일이 없으나 석독구결에서는 가능했던 듯하다. 여기서 '尸+'는 '살기'의 'ㄷ기'를 표기한 것이다.

아래의 것은 기존의 논의에서 속격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문제가 된 예이다.

(17) 我今今 已 諸 菩薩尸 爲 佛 矢 往 } + 修 勿 ㄷ ㄷ 七 清淨  
行 說 } ㄹ ㄷ ㄷ ㄷ ㄷ <화엄 8:23>

여기서 '菩薩尸 爲'은 '보살을 위하여' 정도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바 이때의 '菩薩尸'이 속격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예를 보도록 하자.

(18) 若 其 願 力 自 在 得 普 諸 趣 隨 而 身 現 ㄷ ㄷ 尸 入 ㄷ 則 能 乘 ㄷ  
爲 ㄷ 說 法 ㄷ ㄷ 七 時 十 音 聲 ㄷ 類 ㄷ 隨 ㄷ ㄷ 尸 ㄷ 難 ㄷ 思 議 ㄷ ㄷ ㄷ

11) 15세기에는 존칭체언일지라도 주어적 속격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시' 아닌 '-이/의'를 취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시' 주어적 속격에 쓰일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해석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ヲ分 <화엄 13:13-14>

- ㄱ. 劫七 中ニ 饑饉ノコル 災難ニ 去ヒ七 時ニ 十ニ 悉ク 世間ニ 諸ヲ 樂具シ 與フナク 其欲ハ 所シ 隨フ 皆ニ 滿令リク 尔普ニ 衆生ニ 爲<sub>ニ</sub> 饒益シ 作<sub>ル</sub>ナカ <화엄 17:22-23>
- ㄴ. 是ニ 七<sub>ニ</sub> 十<sub>ニ</sub> 時ニ 菩薩ヲ 工匠<sub>ニ</sub> 爲入<sub>ル</sub>シ<sub>テ</sub> 之<sub>ヲ</sub> 爲<sub>ニ</sub> 立<sub>ル</sub> 種種<sub>七</sub> 業シ 示現<sub>ノ</sub>ムム <화엄 19:13>

(18)의 예도 ‘爲’가 모두 ‘삼-’으로 임혀 ‘위하여’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는바 모두 앞에 ‘衆→, 衆生→, 之→’와 같이 속격을 취하고 있다. ‘위하여’의 의미로 쓰이는 ‘爲’는 후기 중세국어와 같이 목적격을 취한 예도 있으나 이와 같이 속격을 논항으로 취할 수도 있었다.<sup>12)</sup> (18)의 예로 미루어 (17)도 역시 ‘爲<sub>ニ</sub>’이 그 논항으로 속격을 취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제 기존의 논의에서 속격의 ‘스’으로 다루어진 다른 예들을 검토해 보자.

(19) ㄱ. 佛子 此ニ 持藏<sub>ヲ</sub> 邊尸<sub>無</sub> <화소 24:12-13>

- ㄴ. 此<sub>ニ</sub> 菩薩<sub>ヲ</sub> 盡虛空徧法界<sub>七</sub> 邊尸<sub>無</sub> 身<sub>ヲ</sub> 成就<sub>シ</sub> 入<sub>リ</sub> 故<sub>ニ</sub> 入<sub>リ</sub> <화소 26:2-3>
- ㄷ. 何<sub>ニ</sub> 況<sub>カ</sub> 景<sub>無</sub> 邊尸<sub>無</sub> 劫<sub>ヲ</sub> 十<sub>ニ</sub> 具<sub>フ</sub> 地度<sub>シ</sub> 修<sub>ヒ</sub> 七<sub>ニ</sub> 諸<sub>ヲ</sub> 功德<sub>ニ</sub> 口<sub>ニ</sub> 七<sub>ニ</sub> <화엄 9:6>
- ㄹ. 是<sub>ニ</sub> 如<sub>キ</sub> 支<sub>無</sub> 邊尸<sub>無</sub> 大功德<sub>シ</sub> 我<sub>ヲ</sub> 今<sub>ニ</sub> 於<sub>中</sub> 十<sub>ニ</sub> 八<sub>ニ</sub> 少<sub>分</sub> 々<sub>々</sub> 說<sub>フ</sub>ムム <화엄 9:8>
- ㄱ. 若<sub>ク</sub> 得<sub>ル</sub> 尔<sub>ノ</sub> 辯<sub>才</sub> 障礙<sub>ノ</sub> 無<sub>ヒ</sub> 入<sub>リ</sub> 則<sub>チ</sub> 能<sub>ク</sub> 邊尸<sub>無</sub> 法<sub>ヲ</sub> 開<sub>演</sub> ン<sub>テ</sub> 牙<sub>分</sub> <화엄 11:17>
- ㄴ. 若<sub>ク</sub> 能<sub>ク</sub> 邊尸<sub>無</sub> 法<sub>ヲ</sub> 開<sub>演</sub> ン<sub>テ</sub> 入<sub>リ</sub> 則<sub>チ</sub> 能<sub>ク</sub> 慈愍<sub>ス</sub> 尔<sub>ノ</sub> 衆生<sub>ヲ</sub> 度<sub>リ</sub> 牙<sub>分</sub> <화엄 11:18>
- ㄷ. 大光明<sub>ヲ</sub> 放<sub>ル</sub> ン<sub>テ</sub> 有<sub>邊尸<sub>無</sub></sub> 衆生<sub>ヲ</sub> 度脫<sub>ノ</sub>ムム 亦<sub>ニ</sub> 入<sub>リ</sub> 限<sub>ヲ</sub> 無<sub>ク</sub> 入<sub>リ</sub> <화엄 15:4>

(20) ㄱ. 分別<sub>シ</sub> 起<sub>尸</sub> 不<sub>ニ</sub> 食<sub>尸</sub> 不<sub>ニ</sub> 味<sub>尸</sub> 不<sub>ニ</sub> <화소 13:3>

- ㄴ. 味<sub>尸</sub> 不<sub>ニ</sub> 瞿<sub>尸</sub> 不<sub>ニ</sub> <화소 13:14>

(19)의 ‘邊尸’은 ‘ㄹ/ㄹ’으로 (20)의 ‘味尸’은 ‘맛’으로 혼독될 수 있다고 하여 ‘尸’이 ‘스’를 표기하는 것으로 해석된 예들이다. 그러나 위의 예문이 모두 ‘無, 不’ 등이 쓰인 부정문임에 주목해야 한다. 즉 이들 예문에서 ‘邊’과 ‘味’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쓰인 것으로 동명사형어미 ‘尸’이 통합하여 부정문을 형성

12) 이에 대하여는 이진식(1996: 207-208)을 참조할 수 있다.

하고 있는 예들이다. 특히 ‘味’의 경우는 명사로 긍정문에 쓰인 예가 보이는바 이 때는 ‘尸’이 말음으로 첨기되어 있지 않다. 또한 (19口)에서 후행절의 ‘邊尸 無<sub>1</sub>’은 조건의 선행절 ‘障礙尸 無<sub>1</sub>’과 같은 통사적 구성에 의한 부정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도 간접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접 절과의 통사적 구성 관계는 (20ㄱ)과 (20ㄴ)에서 더 명확히 파악된다. 즉 (20ㄱ)에서 ‘貪尸 不<sub>1</sub>’의 ‘貪’은 혹 명사로 보자고 할지 모르나 ‘分別<sub>1</sub> 起尸 不<sub>1</sub>’의 ‘起尸’을 명사로 볼 수는 없다. (20ㄴ) 또한 대등적으로 접속된 후행절 ‘瞿尸 不<sub>1</sub>’에서 ‘瞿尸’도 명사라 하기 어렵다. 따라서 접속된 주변 절들의 통사적 구성을 고려할 때 ‘邊尸, 味尸’은 동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외에 (19스)에서는 ‘邊’이 아닌 ‘有邊’에 ‘尸’이 쓰였다는 점도 이들을 명사로 보기 어려운 증거가 된다 하겠다. 다만 ‘邊尸, 味尸’을 혼독한 것인지 ‘尸’ 앞에 ‘<sub>1</sub>’나 ‘<sub>2</sub>’가 생략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기존의 논의에서 ‘尸’을 ‘尸’으로 해석하는 예에 넣어 다루지는 않았지만 위의 예들과 연관지어 논의할 수 있는 것으로 ‘礙尸’의 예가 있다.

- (21) ㄱ. 若<sub>1</sub> 屢難<sub>3</sub> + 在<sub>1</sub> + 當 願 衆生 意<sub>1</sub> 隨<sub>2</sub>(<sub>3</sub>) 自在<sub>1</sub>  
       <sub>3</sub> 所行礙尸 無<sub>1</sub> <화엄 3:5>  
 ㄴ. 居家<sub>1</sub> 捨<sub>1</sub> 時<sub>1</sub> 當 願 衆生 出家<sub>1</sub> 礙尸 無<sub>1</sub> 心<sub>1</sub>  
       <sub>3</sub> + 解脫<sub>1</sub> 得<sub>1</sub> <화엄 3:6>  
 ㄷ. 智慧 自在<sub>1</sub> 思議尸 不<sub>1</sub> 說法<sub>1</sub> 言辭 有礙尸 無<sub>1</sub> <화엄  
       15:5-7>  
 ㄹ. 出家<sub>1</sub> 求請<sub>1</sub> 當 願 衆生 不退法<sub>1</sub> 得<sub>1</sub> 心<sub>1</sub>  
       <sub>3</sub> 障礙尸 無<sub>1</sub> <화엄 3:9>  
 ㄹ. 此<sub>1</sub> 藏<sub>1</sub> 窮盡尸 無<sub>1</sub> 分段 無<sub>1</sub> 聞尸 無<sub>1</sub> 斷尸 無<sub>1</sub> 變異尸  
       無<sub>1</sub> 隔礙尸 無<sub>1</sub> 退轉尸 無<sub>1</sub> <화소 26:4-8>

(21)의 예 역시 모두 부정문에 쓰인 것으로 ‘礙尸, 有礙尸, 障礙尸, 隔礙尸’ 등은 모두 동사로 쓰인 것이다. ‘邊尸, 味尸’을 ‘又, 맛’으로 혼독한다면 ‘礙尸’은 물론이거니와 (21口)의 ‘窮盡尸,<sup>13)</sup> 間尸, 斷尸, 變異尸, 退轉尸’ 역시 명사로 혼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尸’을 ‘尸’으로 보는 기존의 견해에서 이들을 명사로 파악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 예 역시 ‘邊尸, 味尸’를 명사로 혼독하

13) ‘(窮)盡尸 無’은 15세기의 ‘다움 없-’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수의 예들이 남아 있다. 이들에 대하여는 절을 바꾸어 정리해 보겠다.

#### 2.4. 미해결의 문제

다음의 '尸'은 속격으로 쓰인 예이나 현재로서는 '리'으로 읽을 수 없는 예들이다. 우선 '如來尸'의 예를 보도록 하자.

- (25) ㄱ. 信1 能支 智七 功德シ 增長シ ナ 尸 ナ 尸 ナ 尸 信1 能支 必ハ 如來尸 地3  
 + 到1 ナ 尸 ナ 尸 ナ 尸 <화엄 10:1>  
 ㄴ. 若 能 勤火 七 佛功德シ 修シ ヒ 尸 ナ 尸 則 得3 尔 如來尸 家3 + 生  
 在シ ヒ 尸 ナ 尸 <화엄 11:5>  
 ㄷ. 若 常1 量1 無勿 佛シ 觀見シ ヒ 尸 ナ 尸 則 如來尸 體1 常住  
 勿ト ヒ 尸 ナ 尸 見 ヒ 尸 ナ 尸 <화엄 11:14>  
 ㄹ. 菩薩十 地3 + 是相1 前現1 ノ 尸 ム 如來尸 [之]身1 金色光耀シ  
 下 <금광 6:20>  
 ㅁ. 此 所依1 所建立處シ 依止 [爲] ヒ 尸 ナ 尸 [由] ヒ 尸 ナ 尸 故 ノ 如  
 來尸 諸弟子衆 ヒ [有] ヒ 尸 ナ 尸 所 七 聖法シ 證得シ ヒ 尸 ナ 尸 <유가  
 3:19-22>  
 ㅂ. 謂1 如來尸 弟子1 生圓滿シ 依 3 轉シ ヒ 尸 ナ 尸 時 ナ 尸 <유가  
 4:15-18>
- (26) ㄱ. [於]戒1 及 七 學1 ノ 尸 ム 常 順行シ ヒ 尸 ナ 尸 一切 如來尸 稱美  
シ ヒ 尸 ナ 尸 所 ヒ 尸 ナ 尸 <화엄 10:13>  
 ㄴ. 二者 諸佛如來尸 說白1 ノ 甚深法シ 心 3 常 1 樂 ノ 聞白1 ノ 尸 ム  
 <금광 3:25-41>

속격으로 쓰인 '尸'을 '리'으로 볼 수 없는 예 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이 '如來尸'이다. (25)는 문헌별로 일부의 예문만을 뽑은 것이다. (26)은 주어져 속격으로 쓰인 예이다.

이 외에 속격으로 쓰인 '尸'은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 (27) 若 七 水 3 + 入シ ヒ 尸 ナ 尸 時 ナ 尸 當 願 衆生 一切智 3 + 入シ ヒ 尸 ナ 尸 三世  
 尸 等 3 ノ 尸 ナ 尸 知 ヒ 尸 ナ 尸 <화엄 7:23>
- (28) 施1 戒1 忍1 進1 及 七 禪定1 智慧1 方便1 神通1 シ ヒ 尸 ナ 尸 等 1 ノ  
 是 1 如來 ナ 尸 ナ 尸 一切 尸 ナ 尸 皆 七 自在 シ ヒ 尸 ナ 尸 佛華嚴三昧 七  
 力 シ 以 ヒ 尸 ナ 尸 <화엄 15:6-7>

(27)의 ‘三世尸’는 주어적 속격으로 쓰인 예이다. (28) ‘一切尸+’의 ‘尸+’는 처격으로 사용되었는데 이와 같이 ‘의’가 처격으로 쓰이는 예는 (16ㄷ)에서도 볼 수 있었다. 필자는 이들이 ‘如來尸’와 함께 마지막 음절의 한자음이 ‘ㅣ’로 끝나고 있다는 점과 관련지어 ‘尸’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선 ‘一切’의 경우 현대국어에서 ‘일체’와 ‘일절’의 독음이 다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보자. ‘일절’은 부정의 경우에만 사용되기는 하나 ‘ㅣ’가 ‘ㄹ’과 교체되는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자음에 있어 ‘ㅣ’와 ‘ㄹ’이 교체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는바 필자는 ‘來, 世, 切’ 뒤에서 속격을 나타내기 위해 ‘尸’이 쓰인 것은 이들 한자들이 ‘菩薩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ㄹ’ 발음을 가졌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추정해 본다. ‘世’의 경우는 ‘世’를 참조할 수 있어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으나 ‘來’가 ‘랄’로 읽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 외에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는 다음의 예들이 있다.

(29) 或~<sub>1</sub> 梵志尸 諸<sub>1</sub> 威儀<sub>1</sub> 現 [於]彼衆<sub>1</sub> 中<sub>1</sub> + 上首<sub>1</sub>尸 爲入<sub>1</sub>レ<sub>1</sub> ナ<sub>1</sub> <화엄 19:21>

(30) 二 他師教<sub>1</sub> 謂<sub>1</sub> 所<sub>1</sub> 大師尸 娑波駟耶<sub>1</sub> 阿遮利耶<sub>1</sub>尸 => [於]時 時間<sub>1</sub> + 教授教誡<sub>1</sub>尸 入<sub>1</sub> 依<sub>1</sub> 攝受 依止<sub>1</sub>尸 矣<sub>1</sub> <유가 25:8-10>

(31) 善<sub>1</sub> 於<sub>1</sub> 他<sub>1</sub> 破<sub>1</sub> 四諦 說<sub>1</sub> 外尸 動<sub>1</sub> 所<sub>1</sub> 非<sub>1</sub> 四諦 說 <화엄 20:11>

(32) ㄱ. 佛<sub>1</sub> 此<sub>1</sub> 菩薩<sub>1</sub> 上尸 說<sub>1</sub> 所<sub>1</sub> 如<sub>1</sub> 輪王<sub>1</sub> 位<sub>1</sub> + 處 <화소 11:16-17>

ㄴ. 佛<sub>1</sub> 此<sub>1</sub> 菩薩<sub>1</sub> 亦<sub>1</sub> 上尸 說<sub>1</sub> 如<sub>1</sub> <화소 12:8-9>

(33) ㄱ. 昔尸 得<sub>1</sub> 未<sub>1</sub> 所<sub>1</sub> 勝利<sub>1</sub> 得<sub>1</sub> <금광 7:18>

ㄴ. 昔尸 得<sub>1</sub> 未<sub>1</sub> 所<sub>1</sub> 而<sub>1</sub> 今<sub>1</sub> 始<sub>1</sub> 得<sub>1</sub> <금광 6:23>

ㄷ. 昔尸 問<sub>1</sub> 未<sub>1</sub> 甚深 妙義<sub>1</sub> 聞<sub>1</sub> <유가 7:2-6>

(34) 吾<sub>1</sub> 曹<sub>1</sub> 今<sub>1</sub> 者 各<sub>1</sub> 求<sub>1</sub>尸 所<sub>1</sub> 有<sub>1</sub> <화소 12:12>



‘尸’이 (29)와 (30)에서는 존칭의 속격조사 ‘-시’, (31)에서는 ‘뱃’, (32)에서는 ‘웃’, (33)에서는 ‘넛’ 등으로 읽힐 수도 있을 듯하나 빈번히 쓰이는 동명사형 어미를 표기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 같은 자형을 ‘시’을 표기하기 위해서도 사용하였다고 볼 만큼의 대가를 치르기에는 상당히 빈약한 예들이라 생각된다. (34)의 ‘尸’은 ‘우릿 물은’의 ‘시’을 표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우리똥은’의 ‘씨’을 표기한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이 예들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 2.5. 향가에 보이는 ‘尸’

석독구결에 쓰이는 ‘尸’는 향가에 보이는 ‘尸’에서 기원한 것임이 분명하다. 이 절에서는 석독구결 이전의 ‘尸’의 용법에 대한 고찰을 위해 향가 자료를 검토하기로 한다. 향가의 독법은 양주동(1965), 김완진(1980), 유창균(1994)를 주로 참조하였다.

우선 ‘尸’의 용례 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관형사형어미를 표기하기 위해 사용된 예들이다.

- (35) ㄱ. 毛冬居叱沙哭屋尸以髮音 <慕竹, 2>  
 ㄴ. 目煙迴於尸七史伊衣 <慕竹, 5>  
 ㄷ. 郎也慕理尸心未行乎尸道尸 <慕竹, 7>  
 ㄹ. 郎也慕理尸心未行乎尸道尸 <慕竹, 7>  
 ㄹ. 蓬次叱巷中宿尸夜音有叱下是 <慕竹, 8>  
 ㅂ. 臣隱愛賜尸母史也 <安民, 2>  
 ㅅ. 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尸知 <安民, 3>  
 ㅇ. 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尸知 <安民, 3>  
 ㅈ. 此地盼捨遣只於冬是去於丁爲尸知 <安民, 7>  
 ㅊ. 君如巨多支民隱如爲內尸等焉 <安民, 9>  
 ㅋ. 雪是毛冬乃乎尸花判也 <讚者, 10>  
 ㅋ. 阿邪也吾良遣知支賜尸等隱 <禱千, 9>  
 ㅌ. 放冬矣用屋尸慈悲也根古 <禱千, 10>  
 ㄷ. 此矣彼矣淨良落尸業如 <祭亡, 6>  
 ㄴ. 道尸掬尸星利望良古 <彗星, 7>  
 ㄴ. 行尸浪阿叱沙矣以支如支 <怨歌, 6>  
 ㄷ. 次弗口史內於都還於尸朗也 <遇賊, 6>  
 ㄷ. 好尸日沙也內乎吞尼 <遇賊, 8>  
 ㄴ. 向屋賜尸朋知良聞尸也 <請佛, 6>

- ㄱ. 命乙施好尸歲史中置 <常隨, 6>
- ㄴ. 生界盡尸等隱<摠結, 1>
- ㄷ. 吾衣願盡尸日置仁伊而也<摠結, 2>
- ㄹ. 月置八切爾數於將來尸波衣 <彗星, 6>

‘尸’가 어간 뒤에 바로 통합한 예가 많으나 ‘屋, 於, 乎, 賜, 內’ 등에 후행하는 예도 상당수 보인다. 어간과 관형사형어미 사이에 위치한 ‘屋, 於, 乎, 賜, 內’는 선어말어미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屋’의 경우는 15세기 국어에서 그 용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어서 매우 특이하다. (35ㄴ)와 같이 ‘賜’ 앞에 쓰인 용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균여 향가의 ‘造只賜’ 및 석독구결의 ‘口ハハ’에 나타나는 ‘造只/口ハ’와 관련이 있는 형태인지도 모르겠다. ‘知, 等’의 앞에 쓰인 ‘尸’는 이미 문법화되어 어미화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尸’의 용법을 다소 간략화시켜 살펴보기 위해 그 기원적인 통사 구성을 고려하여 관형사형어미로 처리하였다. (36-)의 예는 해독자마다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여기서는 김완진(1980)의 견해를 따라 ‘將來’를 문법형태소로 보고 ‘數於’에 연결시켜 관형사형어미로 파악하였다.

다음은 동명사형어미로 쓰인 예들이다.

- (36) ㄱ. 民是愛尸知古如 <安民, 4>  
 ㄴ. 祈以支支白屋尸置內乎多 <禱千, 4>  
 ㄷ. 三花矣岳音見賜烏尸聞古 <彗星, 5>  
 ㄹ. 不冬喜好尸置乎理叱過 <隨喜, 8>  
 ㄱ. 向屋賜尸朋知良圖尸也 <請佛, 6>  
 ㄴ. 然叱皆好尸卜下里 <常隨, 7>  
 ㄷ. 佛體爲尸如敬叱好叱等耶 <恒順, 8>

용언의 논항으로 사용이 된 예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격조사가 통합한 예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용언의 논항으로 쓰인 것은 아니지만 (36ㄱ)은 보조사 ‘-야(여)’가 통합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36ㄴ)은 후행하는 ‘卜下里’를 동사로 보느냐 명사로 보느냐에 따라 ‘尸’가 동명사형어미인가 관형사형어미인가가 결정될 것인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견해를 좇아 동명사형어미로 처리하였다.

이제 ‘尸’가 말음첨기에 쓰인 예들을 보기로 하자.

- (37) ㄱ. 郎也慕理尸心末行乎尸道尸 <慕竹, 7>  
 ㄴ. 道尸掃尸星利望良古 <彗星, 7>  
 ㄷ. 道尸迷反群良哀呂舌 <請佛, 8>  
 ㄹ. 二尸掌香毛乎支支內良 <禱千, 2>  
 ㅁ. 秋察尸不冬爾屋支躡米 <怨歌, 2>  
 ㅂ. 佛體叱海等成留薦日尸恨 <普皆, 5>  
 ㅅ. 舊理東尸汀叱 <彗星, 1>

(37ㄱ)~(37ㄷ)은 ‘길’, (37ㄹ)은 ‘둘’, (37ㅁ)은 ‘ᄃ술’, (37ㅂ)은 ‘날’의 발음을 표기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 (22)~(24)에서 보았듯 ‘尸’는 단순히 ‘ㄹ’만을 나타내는 발음첨기가 아니라 어말에 ‘ㄹ’을 가진 ‘ㅎ’ 종성 체언의 발음첨기로 쓰이는 것임을 상기해야 한다. 즉 ‘깊, 뚫, ᄃ술’의 발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다만 ‘日尸’의 경우는 15세기의 ‘날’이 ‘ㅎ’ 종성 체언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이다. ‘ᄃ술’의 경우 15세기에 이미 ‘ㅎ’이 사라진 ‘ᄃ술로, ᄃ술와’ 등이 쓰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날’도 기원적으로는 ‘ㅎ’ 종성 체언이었으나 이미 15세기에 ‘ㅎ’이 사라진 형태만 남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듯도 하지만 이는 아직 미해결의 과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38ㅅ)의 ‘東尸’ 또한 아직 어떻게 해독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석독구결에서 ‘尸’와 ‘乙’을 구별하여 적었듯이 향가에서도 관형사형어미(혹은 동명사형어미)와 목적격조사를 구분하여 표기하였다면 이 둘의 음이 신라 시대에도 달랐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목적격조사가 향가에서 어떻게 표기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아래에서 그 예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석독구결에서 목적격조사가 ‘乙’로 표기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라시대에도 ‘乙’로 표기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향가에서 목적격조사는 ‘旹’로 나타난다.

- (38) ㄱ. 吾旹不喻榭旹伊賜等 <獻花, 3>  
 ㄴ. 旹旹折叱可獻乎理音如 <獻花, 4>  
 ㄷ. 窟理叱大旹生以支所音物生 <安民, 5>  
 ㄹ. 此旹噉惡支治良羅 <安民, 6>  
 ㅁ. 此地旹捨遣只於冬是去於丁爲尸知 <安民, 7>  
 ㅂ. 心未際叱旹遂內良齊 <讚香, 8>  
 ㅅ. 膝旹古召旹 <禱千, 1>  
 ㅇ. 千隱手口叱千隱且旹 <禱千, 5>  
 ㅈ. 一等下叱放一等旹除惡支 <禱千, 6>

- ㄷ. 乾達婆矣遊烏隱城叱股良望良古 <慧星, 2>
- ㅋ. 際于萬隱德海股 <稱讚, 7>

- (39) ㄱ. 薯童房乙 <薯童, 3>
- ㄴ. 功德叱身乙對爲白惡只 <稱讚, 6>
  - ㄷ. 佛前灯乙直體良焉多依 <廣修, 2>
  - ㄹ. 菩提向焉道乙迷波 <懺悔, 2>
  - ㄹ. 法雨乙乞白乎叱等耶 <請轉, 4>
  - ㅁ. 衆生叱田乙潤只沙音也 <請轉, 8>
  - ㅂ. 手乙資非鳴良奈 <請佛, 3>
  - ㅇ. 難行苦行叱願乙 <常隨, 3>
  - ㅅ. 命乙施好尸歲史中置 <常隨, 6>
  - ㅈ. 迷火隱乙根中沙音賜焉逸良 <恒順, 2>

(38)은 ‘吩’이 목적격조사로 쓰인 예인데 (38ㄷ)만이 균여 향가에 보이는 예이다. (39)는 석독구결과 같이 ‘乙’이 목적격조사의 표기에 쓰인 예인데 (39ㄱ)의 「薯童謠」를 제외하면 모두 균여 향가의 예이다. 유창균(1994)에서는 목적격조사의 표기에 쓰이던 ‘吩’이 고려시대에 오면서 ‘乙’로 바뀌었다고 하고 「薯童謠」는 비교적 후대의 표기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여기서 필자는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목적격조사의 표기가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尸/尸’와는 계속 구별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신라시대 이래로 15세기까지 목적격조사와 관형사형어미는 그 소리가 달랐던 것이다. 그러나 점차 ‘ㅍ/ㅑ/ㅑ’에서 ‘ㅍ’ 뒤의 음이 소실되면서 ‘ㅍ’로 인식되는 변화가 진행된 듯하다.

- (40) ㄱ. 吾吩不喻慳吩伊賜等 <獻花, 3>
- ㄴ. 此矣有阿米次吩伊遣 <祭亡, 2>
  - ㄷ. 二脛隱五下於叱古 <處容, 5>
  - ㄹ. 二脛隱誰支下焉古 <處容, 6>
- (41) ㄱ. 夜矣 卵乙 抱遣去如 <薯童, 4>
- ㄴ. 善芽毛冬長乙隱 <請轉, 7>
  - ㄷ. 菩提叱菓香烏乙反隱 <請轉, 9>
- (42) ㄱ. 修叱賜乙隱頓部叱吾衣修叱孫丁 <隨喜, 5>
- ㄴ. 爲乙吾嚮同生同死 <恒順, 6>



과 ‘ㅅ’의 두 가지로 보고자 하는 견해가 있었는바 같은 문헌에서 같은 글자를 이렇게 다르게 운용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글은 ‘尸’에 대하여 ‘ㄹ’과 ‘ㅅ’의 두 가지 음가를 배당하는 견해를 지양하고 ‘ㅈ’의 음가만을 적용하여 자료들을 해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문 부분을 다섯 개의 절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였는바 결론은 각 절별로 내용을 간단히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2.1에서는 15세기 국어에 보이는 속격조사 ‘ㅅ’의 음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즉 속격의 ‘ㅅ’이 /s/로 실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예와 /ʃ/로 실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예들을 검토하여 속격의 ‘ㅅ’이 이 두 가지 음으로 모두 쓰일 수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공존은 15세기가 속격조사 ‘ㅅ’이 원래는 /s/이었다가 /ʃ/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였음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2.2에서는 15세기의 관형사형어미 ‘-ㅈ’의 ‘ㅎ’과 속격조사 ‘ㅅ’이 음성적으로 유사한 것이어서 표기상 혼동될 수도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것이 단순히 표기상의 혼동인지 실제로 음이 서로 넘나들며 실현된 것이었는지는 미상이나 관형사형어미의 ‘ㅎ’과 속격조사 ‘ㅅ’이 음성적으로 매우 가까웠음을 틀림없다. 2.3에서는 관형사형어미나 동명사형어미로 쓰이는 ‘尸’뿐 아니라 말음첨기로 쓰인 ‘菩薩尸, 十尸, 二尸’ 등의 ‘尸’에 대해서도 그 음가를 ‘ㅈ/ㄹ’ 내지 ‘ㅈ’으로 볼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다만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ㅈ/ㄹ’과 ‘ㅈ’ 사이의 관련성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2.4는 ‘尸’을 ‘ㅈ’만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되는 예들을 다룬 부분이다. ‘如來尸, 三世尸, 一切尸’에 대하여는 궁색하나마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하였으나 나머지 예들은 아직 미해결의 과제로 남겨 둘 수밖에 없었다. 2.5에서는 향가에 보이는 ‘尸’의 예를 검토하면서 그 예들이 석독구결에 보이는 ‘尸’과 기본적으로 체를 같이 하는 것임을 보았다. 이와 아울러 ‘ㅈ’이 공명을 앞에서 ‘ㄹ’로 되는 현상이 이미 향가에서도 나타남을 보았다.

이상의 논의는 특히 음운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어서 미처 이 글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부분이 많다. 또한 필자의 전공 분야를 넘어서는 영역을 많이 끌어들이려 다룬 까닭에 다소 치밀하지 못한 논의를 펼치기도 하였다. 다른 연구자들의 많은 질정을 바라는 바이다.

## 참고문헌

- 김완진(1957), 「-n, -l 동명사의 통사론적 기능과 발달에 대하여」, 『국어연구 2』, 국어연구회.
- 김완진(1980), 『항가해독법연구』, 서울대출판부.
- 김유범(1996), 「‘尸’의 이중적 음가 문제에 대한 해명을 위하여」, 『한국어학』 4, 한국어학회.
- 남풍현(1996a),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尸/ㄹ’에 대한 고찰」, 『구결연구』 1, 구결학회.
- 남풍현(1996b), 「『金光明經』 권3의 석독구결에 나타난 尸의 용법에 대하여」, 『이기문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신구문화사.
- 남풍현(1996c),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동명사어미 ‘-ㄱ/ㄴ’에 대한 고찰」, 『국어학』 28, 한국어학회.
- 남풍현(1999), 『국어사를 위한 구결연구』, 태학사.
- 류탁일(1977), 「선초문헌에 쓰여진 불가구결」, 『하서김종우박사화갑기념논문집』[『한국문헌학연구』(아세아문화사, 1989)에 재수록].
- 박장원(1990), 「국어 자음군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백두현(1993), 「고려본 화엄경의 구결자 ㅅ와 ㅈ - 그 독음과 문법 기능」, 『어문논총』 27, 경북어문학회.
- 심재기(1979), 「‘-ㄹ’동명사의 통사적 기능에 대하여」, 『문법연구』 4, 문법연구회.
- 안병희(1990), 「훈민정음언해의 두어 문제」, 『백사 이우성선생 정년퇴임기념 국어국문학논총』, 여강출판사.
- 양주동(1965/1990), 『증정고가연구』, 일조각.
- 유창균(1994), 『항가비해』, 형설출판사.
- 이진식(1996),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조사에 대한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 이기문(1981), 「천자문 연구(1)」, 『한국문화』 2,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 이승재(1993), 「고려본 『화엄경』의 구결자에 대하여」, 『국어학』 23, 한국어학회.
- 이승재(1995), 「동명사어미의 역사적 변화」, 『국어사와 차자표기』, 태학사.

이장희(1995), 「『화엄경』 구결자 ‘尸’의 기능과 독음」, 『어문학』 56, 한국어문학회.

황국정(2000), 「음절말 ‘스’의 음가에 대한 역사적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황선엽(2000), 「고려시대 구결자의 문자론적 검토」, 『박병완선생 정년퇴임기념논총』, 월인.



Abstract

## The interpretation of ‘尸’ in Seokdokgugyeol of Koryeo Dynasty

Hwang Seon-Yeop

*Seokdokgugyeol*(釋讀口訣) is the method of reading Chinese texts in Korean by adding borrowed letters. These letters has the feature of syllabic letters in principle and thus morphemes with the same sound value are generally represented with the same letters. Thus, the primary reason why the objective case maker ‘乙’ is differently represented from adnominal ending or nominal ending ‘尸’ is that originally they have different sound values. To put it another way, ‘乙’ represented /i)l/ and ‘尸’ /i)lʔ/. In the past studies, some argued that ‘尸’ was regarded both as /l/ and as /s/. But it hardly makes sense that the same letters were used differently in a single tex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fute the claim that ‘尸’ had two different sound value of /l/ and /s/ and to interpret texts by applying the sound values /i)lʔ/ to ‘尸’. This paper consists of five sections, whi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Section 2.1 deals with the sound value of possessive case marker ‘ㄸ’ found in the 15th century Korean. This section examines some examples of the ‘ㄸ’ presumed to be pronounced as /s/ and other examples of the ‘ㄸ’ presumed to be pronounced as /ʔ/, showing that the ‘ㄸ’ was pronounced as two different sound values. The such coexistence of two different sound values for the ‘ㄸ’ implies that the possessive case marker was in the transition period where it changed from /s/ to /ʔ/. Section 2.2 finds that /ʔ/ of 15th century’s adnominal ending ‘-ᄃᆞᆫ/ʔ’ and possessive

case marker ‘ㄱ’ are phonetically similar to each other and consequently could be confused with each other in representation. It remains still unknown whether it is a simple confusion in representation or the two different sound valueㄱ really existed for the ‘ㄱ’. However, it is certain that ‘ㄱ’ of adnominal ending and possessive case marker ‘ㄱ’ were phonetically similar to each other. Section 2.3 discusses that sound value of not only ‘ㄱ’ that is used as adnominal ending or nominal ending, but also ‘ㄱ’ that is *Mareumcheomgi*(宋音添記) - as seen in ‘菩薩ㄱ, 十ㄱ, 二ㄱ’ - can be /ŋ/ and/or /h/. For that matter, however, the relation between /ŋ/ and /h/ should be clearly explained first. Section 2.4 handles with the problems caused by regarding ‘ㄱ’ only as /ŋ/. This section provides some explanations for ‘如來ㄱ, 三世ㄱ, 一切ㄱ’, not satisfactorily though, but the remaining examples are left unsolved. Section 2.5 examines some examples of ‘ㄱ’ found in *Hyangga* and shows that they are basically in line with the ‘ㄱ’ found in *Seokdokgugyeol*. In addition, this section discusses that the /ŋ/ in front of resonants changing to /l/ are witnessed in *Hyangga* as well.